

8월 전당대회 이낙연·송영길 당권 도전 여부 관심

총선 호남 출신 당선자들 거여정국 역할론 주목

내달 선출 원내대표에 전해철·김태년 등 물망
이개호·송갑석·양향자 최고위원 도전 목소리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오는 5월 원내대표를, 8월에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등 호남에 지역구를 두거나 호남 출신 의원들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당내 권력 구도에 있어 '친문' (친문재인) 진영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해진 상황에서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과제를 안은 광주·전남 정치권이 민주당에서 어떠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 것인지 주목된다.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달 8일 완료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쟁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도전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3선인 이개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재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아직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하는 대승으로 3~5선 중진 그룹이 한층 두꺼워진 가운데 당내에서는 4선 고지에 오른 86그룹 (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부상하며 당내 리더십 쟁탈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목표가 고향인 전해철 의원 (3선)과 순천이 고향인 김태년 의원 (4선)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 과거 원내대표에 두 차례 도전했던 노영민 의원과 현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호남 주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측면 지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 측면 지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163명이나 되면서 아직까지 원내대표 후보군은 안개속인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원내대표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가 오는 8월 개최된다.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24일 종료된다.

관전포인트는 이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 민주당 압승을 견인한 이낙연 당선자의 당권 도전 여부다. 당 내외에서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당선자가 대선을 앞두고 당의 재정비와 세력화를 목표로 전당대회에 뛰어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 장악 후 대권 잡기에도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유력 대선 후보지만 당내 세력이 크지 않고 정치적 팬덤 (강력한 지지층)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당선자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것이 많다. 때로는 오만하다. 제가 그 버릇을 잡아놓겠다'고 밝혀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전대를 통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당권-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2년 임기를 다 못채우고 내년 3월 이전 사퇴해야 하는데다 당권 경쟁 과정에서 갈등 등으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당



민주당 광주 당선자들 "감사합니다"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당선인들이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동남갑 윤영덕, 광산갑 이용빈, 동남을 이병훈, 서구갑 송갑석, 서구를 양향자, 광산을 민형배, 북구갑 조오섭 당선자.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 여론을 살피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5선 의원으로 성장, 정치적 중량감을 키운 고흥 출신의 송영길 의원은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당 대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력이 있어 이번이 당권 도전 3수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당내의 친문 그룹이 영남 쪽 당선자를 당

권 주자로 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여권의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가운데서는 3선의 이개호 의원,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8월 전대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여성 몫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는 양향자 당선자의 지도부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형배, 84.05%...전국 최고 득표율 광주·전남서 전국 득표율 '톱3' 배출

11명이 70% 이상 득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몰표 현상이 뚜렷해 당선자들의 높은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을 앞세운 민생당이 예측과는 달리, 지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해 다득표자들이 속출했다.

1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당선인 가운데 8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3명이 모두 이곳에서 나왔다.

광주 광산을 민형배 당선자는 84.05%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 당선자는 재선 광산구정장을 역임하면서 복지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델을 창출하는 등 유권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서구갑 송갑석 (82.18%),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81.95%) 당선자도 득표율 80%를 넘기는 등 총 18명의 당선자 가운데 11명이 70% 이상 득표로 당선됐다.

광주에서는 북구를 이형석 (78.82%), 광산갑 이용빈 (77.77%), 동남구갑 윤영덕 (77.23%), 서구를 양향자 (75.83%), 동남구를 이병훈 (72.27%) 당선자 등 1명을 빼고는 모두 70% 이상을 기록해 민주당 비망을 실감하게 했다. 무소속 현역 김정진 의원과 경쟁한 조오섭 당선자만 57.79%였다.

전남에서는 나주·화순 신정훈 (78.80%),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76.96%), 여수를 김희재 (71.58%) 당선자 등 3명이 70%대였다. 이개호 당선인을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이 70% 이상을 기록한 셈이다.

4명은 60%대였으며 '정치 9단' 민생당 박지원 의원과 격돌한 목표 김원이 당선자는 48.76%로 가장 낮았다. 전략 공천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당선자는 58.56%를 기록해 그다음으로 낮았다. 곳곳에서 조립전이 이뤄졌던 이번 총선에서 80% 이상 득표자는 광주와 전남에서만 나왔다. 7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도 광주·전남을 제외하면 전북 3명, 경북 2명뿐이었다.

광주에서는 북구를 이형석 (78.82%), 광산갑 이용빈 (77.77%), 동남구갑 윤영덕 (77.23%), 서구를 양향자 (75.83%), 동남구를 이병훈 (72.27%) 당선자 등 1명을 빼고는 모두 70% 이상을 기록해 민주당 비망을 실감하게 했다. 무소속 현역 김정진 의원과 경쟁한 조오섭 당선자만 57.79%였다.

전남에서는 나주·화순 신정훈 (78.80%),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76.96%), 여수를 김희재 (71.58%) 당선자 등 3명이 70%대였다. 이개호 당선인을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이 70% 이상을 기록한 셈이다.

4명은 60%대였으며 '정치 9단' 민생당 박지원 의원과 격돌한 목표 김원이 당선자는 48.76%로 가장 낮았다. 전략 공천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당선자는 58.56%를 기록해 그다음으로 낮았다. 곳곳에서 조립전이 이뤄졌던 이번 총선에서 80% 이상 득표자는 광주와 전남에서만 나왔다. 7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도 광주·전남을 제외하면 전북 3명, 경북 2명뿐이었다.

광주에서는 북구를 이형석 (78.82%), 광산갑 이용빈 (77.77%), 동남구갑 윤영덕 (77.23%), 서구를 양향자 (75.83%), 동남구를 이병훈 (72.27%) 당선자 등 1명을 빼고는 모두 70% 이상을 기록해 민주당 비망을 실감하게 했다. 무소속 현역 김정진 의원과 경쟁한 조오섭 당선자만 57.79%였다.

전남에서는 나주·화순 신정훈 (78.80%),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76.96%), 여수를 김희재 (71.58%) 당선자 등 3명이 70%대였다. 이개호 당선인을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이 70% 이상을 기록한 셈이다.

광주·전남 당선자 3명 중 1명 재산 20억원 이상...6명은 병역 미필

5명 전과 대부분 시위 관련

광주·전남 당선자 3명 중 1명은 20억원 이상 재력가이며, 6명은 병역 미필, 5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광주 서구를·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34억9800만원, 김희재 (여수) 당선자는 33억3300만원을 신고해 각각 광주·전남에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29억 6900만원,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26억4600만원, 이병훈 (동남을) 25억 5200만원, 주철현 (여수갑) 22억5300만

원 등 당선인 6명이 2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했다. 이용빈 (광산갑) 14억4000만원,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13억1600만원 등 당선인 2명은 1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또 민형배 (광산을) 9억7200만원, 김원이 (목포) 7억5900만원,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4억5000만원,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을) 3억9000만원, 이형석 (북구을) 3억3000만원이었다. 조오섭 (북구갑),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윤영덕 (동남갑)·송갑석 (서구갑), 신정훈 (나주·화순) 당선자는 1억원대였다. 후보자 명부 작성 당시 체납액이 있었던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다만 소병철 당선자는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체납액 (20만원)이 있었다.

여성인 양향자 당선자를 제외한 17명 중 병역 미필자는 6명이었다. 3명 중 1명 풀이다. 윤영덕, 송갑석 당선자는 각각 수형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조오섭 당선자는 수지 (손가락) 결혼으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전남에서도 소병철, 서동용, 신정훈 당선자 등 3명이 미필자였다. 소병철 당선자는 디스크 이상으로도 불리는 '요추 척추궁 완전 절제술 및 제4 요추 전이증 수술'을 사유로 들었다. 서동용, 신

정훈 당선자는 수형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전과가 있는 당선자는 5명으로 상당수는 집회·시위 관련 전과였다. 광주의 경우 송갑석 당선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건의 전과가 있다. 윤영덕 당선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전남에선 신정훈 당선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5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서동용 당선자는 공용 물건 손상, 김승남 당선자는 특수 공무 집행방해 등 1건씩 전과가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M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www.woori-hospital.com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